

이재명 대통령 취임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취임 선서... 민생 회복부터 시작
비상경제TF 가동해 경제 살리기
“내란 안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총리·비서실장 등 첫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추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균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다. 안보실장은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현충일... 6일자 신문 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인선 발표 ▶ 2면 호남 인재 중용 기대감 ▶ 3면 분주했던 취임 첫 날 ▶ 4면 지역 현안 사업 탄력 ▶ 5면 이재명은 누구 ▶ 6면 여야 정치권 표정 ▶ 7면 시민 반응 ▶ 8면

SAMSUNG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꿈도
청년들의 기회도
우리들의 미래도

다 함께 커가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삼성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